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과 진로적응성 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 S대학교 C학부 사례를 중심으로*

박복미** (서울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무전공 대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전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대학 C학부 이공계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 총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9.0을 활용하였으며,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첫째,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전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하위요인 중 교육성도가 무전공 대학생의 전공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전공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역시 전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중 관심(Concern), 통제(Congrol), 자신감(Confidence)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은 전공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진로적응성은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무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적응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방안과 제공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성과 부분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 진로적응성, 전공적응, 전공미결정, 무전공입학, 진로탐색, 전공탐색

** 제1저자,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객원부교수, bbbomi@snu.ac.kr

I. 서론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공자유선택 입학생 비율을 대학 입학 정원의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신영, 2026). 이러한 '무전공제'는 학생이 대학 입학 때 전공 구분을 하지 않고 2학년 이후 전공을 정하는 제도이다(전종희, 2024).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적성과 직업 특성을 충분히 탐색한 후에 전공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자유전공학부 운영사례를 보면 전공 탐색과 교양교육이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아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정유남 외, 2025). 또한 목표설정이 뚜렷하지 않은 일부 신입생의 경우 1년이라는 시간을 우왕좌왕하며 시간낭비를 할 수도 있으며,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순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중도이탈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김하연, 2026).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1학년 동안의 전공탐색 과정에서, 소속감의 부재 역시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곽비주, 2025).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 대학에서의 전공선택은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첫 번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Super(1957)의 경력발달 단계(Career Development Stages)에 따르면 대학생은 인생의 경력발달 단계 중 탐색기(Exploration)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개인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해 알아가며, 전공 및 직업 선택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와 수정을 반복하는 시기이다.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은 경력초기 단계인 탐색기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이다(이재영, 백평구, 2025). 전공선택 과정에서 경험하는 전공 관련 교과 및 비교과 교육은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최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전공 탐색 지원은 단순히 학문 분야를 선택하는 차원을 넘어, 자아정체성의 확립, 사회적 역할 탐색, 진로 목표 설정 등과 같은 생애 발달 단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교육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임수연, 김은영, 2025). 이는 전공선택이 개인의 학업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 과업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공선택 과정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과 같은 환경적 자원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전공자유선택제 정착을 위해 전공 미결정 학생들의 전공선택 등 진로 개척을 위한 교

과목 개설 및 체계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이 강조되고 있다(김형기, 이은채, 2025). 해외 대학들은 일찍부터 무전공 학생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고, UC Santa Barbara는 동료 및 교수들 간의 교류, 체계적인 학생 상담,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박금주, 2024). 특히 전공자율선택제와 같은 새로운 학제 운영에서는 대학 차원에서의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고은선, 심태은, 2024)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설계하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며, 대학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선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시절 전공은 대학생활에서의 학습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진로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전공자율선택제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대학 시절 조기 전공탐색 및 선택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황영아, 2024).

현재 많은 대학에서 교과와 비교과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전공 역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최정희, 2020). 또한 전공자율선택제도의 확대에 따라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고, 향후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야 하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교육적 지원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초기 대학 생활에서 충분한 진로 정보와 전공 분야의 탐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진로 불확실성, 전공 결정 회피, 자기효능감 저하 등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황영아, 2024). 이에 전공자율선택제 하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및 교과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정유남 외, 2025).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대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에 대한 적응력이 중요하며, 특히 대학 과정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대학생들은 자기 탐색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을 하고,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하는 활동을 하는 시기로, 전공선택은 미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업이다. 이 때문에 전공을 포함한 진로에 대한 적응을 위한 노력은 미래 직업과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예측 가능한 과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Savickas, 1997)으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진로적응성은 자신의 나이와 진로 수준에 적당한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와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과 환

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환경을 탐색하고 새롭고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에 대처해 나가는 자기조절 전략으로서, 개인이 소유한 심리적 자원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최옥현, 김봉환, 2006). 무전공 학생들은 입학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전공 선택은 단순한 학문 분야의 결정이 아니라 향후 진로 방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준비 수준과 적응 역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무전공 학생의 전공 선택 과정은 진로적응성과 같은 개인의 진로 준비도 및 변화 대처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전공 대학생은 전공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진로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전공학생의 진로 및 전공의 충분한 탐색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이 '탐색의 기회',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진로적응성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전공으로 입학한 후 1년 동안의 전공탐색 지원의 일환으로 경험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과 진로적응성이 무전공학생의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진로적응성이란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환경을 탐색하고, 새롭고 불확실하며 예측 불가능한 변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에 대처해 나가는 자기조절 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S대학 C학부 2학년 1학기 재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개인적 요인인 진로적응성이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공탐색을 위한 학교 환경차원인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변인이 진로적응성이 무전공 학생의 전공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무전공으로 진입한 학생들의 전공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개인적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공자유선택 제도의 확대라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주목한다.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거나 전환하는 경험은 대학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며(Silver, 2023), 특히 전공자유선택제도에 따른 입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전공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대학 생활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공적응은 대학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환경 차원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 과정에서 개인이 보여주는 주도성과 준비성 역시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개인 차원의 변인인 진로적응성 또한 전공적응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Super(1957)의 탐색기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은 환경 탐색과 자아 탐색을 병행하는 시기이며, 비교과 프로그램은 환경적 탐색 자원으로서, 진로적응성은 개인 내적 자원으로서 상호보완적으로 전공적응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Savickas(2005)의 진로구성이론에서 강조하는 적응력(adaptability)은 환경적 지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이란 정규 교육과정 외에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하며(심희수, 박인우, 2024), 진로적응성은 예측가능한 진로 과업에 대한 준비도와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의미한다(Savickas, 1997). 전공적응은 전공을 수행하고 전공에 집중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유호, 2013). 기존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나 만족도가 학업적응, 대학생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연구되었고(손미란 외, 2024; 신소영, 권성연, 2013), 진로적응성과 전공몰입·학업적응의 관계도 부분적으로 탐구되었다(이정아, 윤소정, 2018; Murray, 2015). 그러나 무전공 확대라는 고등교육 변화 맥락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환경적 요인)과 진로적응성(개인적 요인)을 통합하여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무전공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무전공 대학생의 특성과 전공적응의 중요성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입학 후, 1년이라는 탐색과정을 거쳐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전공자유선택제의 가장 큰 장점이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공 선택을 하려면 1학년 때, 학생들이 대학 생활로의 전환과 전공 탐색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대학의 지원 프로그램에의 개입을 통해 가능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Harper et al., 2023). 바로 학교와 나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과라는 비교적 소속이 명확하고, 대학 적응과 관련된 유용한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선배가 존재하는(김해숙, 권정현, 2024). 신입생들과 달리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소속감의 부재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 1학년은 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학습동기의 상당한 변화를 겪는 과정이다(Eccles & Wigfield, 2002). 특히 고등교육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을 미래 진로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여기며, 새롭게 접하게 되는 전공과 전공 교수. 수업 체계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OECD(2019)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이유로 고등교육 학생의 약 3분의 1이 졸업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다고 한다. 특히 융합전공등이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융합전공 부적응’에 대한 문제에 대해 대학은 융합전공자들의 전공트랙제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장지영 외, 2024). 이 때문에 대학생들의 전공적응 및 진로탐색 과정을 통한 진로적응 지원활동은 사회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미래 인재로의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최공집, 조혜영, 2020).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로 많은 대학에서 전공역량 강화와 진로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교과와 전공교과 과정의 연계를 통해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향상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공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최미순 외, 2019).

2. 비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운숙 외, 2019).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기여한다(윤희정 외, 2018). Bakoban과 Aljarallah(2015)는 비교과 활동이 자존감, 학업성취,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어,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업성과는 물론 개인의 심리적 변수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Guevremont et al.(2014)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정서적 건강, 대인관계 능력, 모험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신소영, 권성연(2013)은 비교과 영역이 학생들의 학문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비교과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는 가운데, 학업성취, 인지발달(Ahren, 2010), 심리 사회적 발달(Bakoban & Aljarallah, 2015), 대학생활 만족(신소영, 권성연, 2013; White & Gager, 2007)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많은 대학에서 교과과 비교과 간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전공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최정희, 2020). 비교과 프로그램은 전공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전공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김현우, 강선영, 2018).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성과, 지원환경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심희수, 박인우, 2024). 교육내용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의 적절성을, 교육방법은 학습 전달 방식의 효과성을, 교육성과는 참여를 통해 얻는 실질적 역량과 지식 향상을, 지원환경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물리적 지원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성과 측면에서 김대근과 김우식(2024)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성과가 높을수록 전공몰입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지원환경 측면에서는 Xiao와 Liang(2024)이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학업결과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대학생활의 자체의 만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성과에까지 도움이 되고 있다(한안나, 2017).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이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김성숙, 2014; 조아라 외, 2015).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전공자율선택제도는 학생에게 전공 탐색 기간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초기 학업·진로 혼란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비교과프로그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3.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이란 미래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과제에 대한 준비도와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

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Savickas, 1997). Nota et al.(2012)은 직업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인이 더욱더 주도적으로 자신의 전문성과 진로에 대한 주도성을 개발하고 진로적응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진로적응성은 청년기 이후의 진로발달의 성공적인 전환 지표로 확인되었으며(장계영, 김봉환, 2009; Hirschi, 2009) 진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 탐색 및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Creed et al., 2003). 이러한 진로적응성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나, Savickas(2005)는 연구를 종합하여 4차원으로 재구성하였다. 진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관심(Concern), 진로의 결정과 관련되어 조절할 수 있는 통제(Control), 외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개방성을 나타내는 호기심(Curiosity),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관련된 자신감(Confidence)이 그것이다. Savickas(2005)는 진로적응성을 4차원으로 제시하였다. 관심(Concern)은 미래 진로에 대한 주도적 사고와 계획 수립 능력을, 통제(Control)는 진로 결정에 있어 자기 조절과 책임감을, 호기심(Curiosity)은 다양한 직업 세계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개방성을, 자신감(Confidence)은 어려운 과업에 도전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를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과 관련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관심과 자신감은 전공선택 만족 및 학업적응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urray, 2015; Duffy et al., 2015).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주도적인 진로개발은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적응성은 개인 차원의 핵심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Hall과 Mirvis(1996)는 현대 경력 환경에서 객관적 성취보다 개인의 심리적 성공에 기반한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경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전공자율선택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전공을 탐색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 대응 능력과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진로적응성과 같은 개인특성 변인은 무전공 학생의 전공 탐색과 선택, 나아가 전공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

4. 전공적응

진로와 관련하여 현재의 전공과의 갈등여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전공적응이 높은 집단은

자신의 전공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강혜영, 2011).

전공적응이란 전공을 수행하고, 전공에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김유호, 2013). 전공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과선택만족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학업수행만족은 전공 과제 수행의 효능감과 성취감을, 진로목표안정성은 선택한 전공과 미래 진로 방향의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강혜영, 2008). Conoley와 Conoley(1991)는 개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선호하고 참여할수록 전공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김수천(1973)은 학습 선호와 전공적응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적응과 전공만족의 관계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적응과 전공만족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구결과는 전공선택을 위해 전공탐색이 이루어지는 1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의 전공적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Conoley와 Conoley(1991)는 개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선호하고 참여할수록 전공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 목표와 연계된 학습 경험을 할 때 전공에 대한 몰입과 만족이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공 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학년 시기에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학습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공적응을 촉진하는 데 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전공자유선택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따라 학생들은 일정기간 동안 전공을 탐색한 후 선택하게 되므로, 전공적응은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 지속에 있어 핵심 변인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전공자유선택 체제에서는 학생의 진로 관심과 연계된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공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주요 변수들의 관계

가.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전공적응의 관계

최근 대학에서는 전공 및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다. 손미란, 박지순, 추가영(2024)의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의 학업능력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A, B대학에서 최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신입생 및 저학년 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학업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현주와 권나현(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비교과 프

로그램 참여에 의한 전공선택은 평균 학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흥미와 진로 계획에 따른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대학생의 생활적응과 학업성취 지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Ribeiro et al.(2024)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39편의 문헌을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비교과 활동 참여가 대학생의 학업 성공 및 취업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 중 김대근과 김우식(2024)의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성도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학생이 인식하는 비교과 교육성도가 높을수록 전공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수가 인식하는 비교과 교육성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전공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나영(2025)의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대학생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멘토링과 진로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한 집단과 전반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 모두 소극적 참여 집단에 비해 대학생 생활 적응, 만족도, 전공 적합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진로적응성과 전공적응의 관계

Murray(2016)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이 전공몰입(major commitment) 및 전공만족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Duffy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진로적응성으로 종속변수를 학업만족으로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진로적응성의 하위 4가지 구성요인 모두 학업만족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전공적응에 진로적응성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드물지만, 대학생 생활적응, 전공몰입, 학업몰입과 같은 전공적응과 유사한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며, 진로적응성이 이러한 종속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정아, 윤소정(2018)의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과 대학생 생활적응(학업/대인관계/학과적응)간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진로적응성은 대학생 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적응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보다 학업적응, 학업몰입, 전공만족 등 전공적응과 밀접한 변인들로 주로 연구되고 있다. Oliveira와 Marques (2024)는 진로적응성과 학업몰입(academic engagement)이 대학생의 적응 과정(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진로적응성이 학업몰입과 함께 삶의 만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m et al.(2021)은 진로적응성과 함께 그릿, 자기조절학습, 학업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로써, 진로적응성이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학업적응에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다.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적응성, 전공적응의 통합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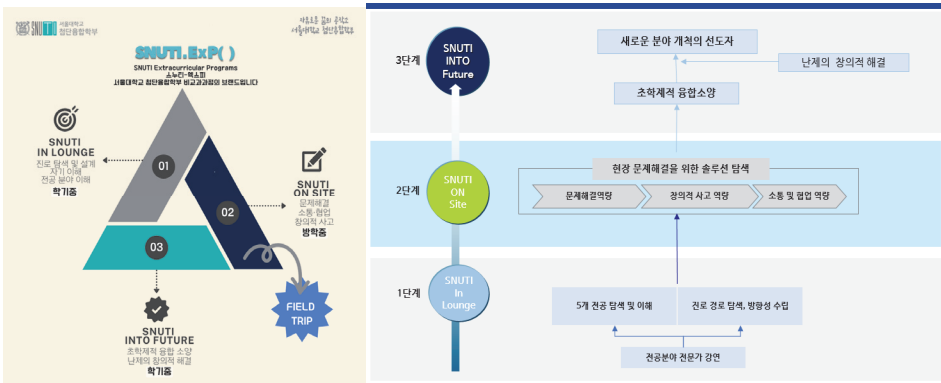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전공적응의 관계(손미란 외, 2024; 김대근, 김우식, 2024), 진로적응성과 전공적응의 관계(Murray, 2016; Duffy et al., 2015; 이정아, 윤소정, 2018)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세 가지 변인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는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전공적응의 관계, 진로적응성과 전공적응의 관계 연구가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적 요인(비교과)와 개인적 요인(진로적응성)이 전공자출선택제도의 확대라는 고등교육 변화 맥락에서 두 요인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S대학교 C학부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

분석 대상인 S대학교 C학부는 2024년 3월, “함께 빛어낼 자유로운 꿈, 미래를 여는 담대한 도전”이라는 비전과 함께 설립되었다. C학부는 초학제적 탐구,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심층적인 토론이 구현되는 교육 혁신 플랫폼이라는 역할 아래, 5개 전공을 통해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설립된 신생 학부이다. 계열별 모집인 유형2에 해당하는 C학부는 전공의 미결정 상태로 입학하여 2학년 1학기 말 전공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S대학교 C학부는 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탐색을 학습목표로 SNUTI.Exp()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교육체계 내 SNUTI IN LOUNGE는 전공탐색 및 진로탐색을 교육목표로, 5개 전공 분야 석학 및 산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공분야의 연구 및 트렌드를 다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관련전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전문가의 경력 경로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관련 전공을 선택했을 때의 자신의 미래 진로 설계를 탐색해 볼 수 있다. 방학 중 이루어지는 SNUTI ON SITE는 산업 및 현장의 실제 문제를 기반하여 워크숍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자 참여형으로 이

루어진다. 과정에서 상호간의 팀워크, 협업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의 소통을 바탕으로 다학제적, 창의적 사고가 함양될 수 있다. SNUTI INTO FUTURE는 초학제적 소양 및 융합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며, 각 분야 석학의 강연으로 이루어진다(그림 1 참조).



[그림 1] S대학교 C학부 비교과프로그램 체계

2024년 S대학교 C학부 비교과 프로그램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11회 운영되었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각 과정별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S대학교 C학부 2024년 비교과 프로그램

과정명	교육시기	교육시간	주제/주요 내용
SNUTI IN LOUNGE	학기중	1시간 30분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메타 AI 기술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로 살아남기
			전공탐색 시리즈: 디지털헬스케어 전공
			전공탐색 시리즈: 혁신신약 전공
			전공탐색 시리즈: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전공
			뇌 이식을 통해 최초 파킨슨 임상 치료 성공
SNUTI INTO FUTURE	학기중	1시간 30분	AI와 함께 살아가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요
			첨단융합, 게임의 세계
SNUTI ON SITE	방학중	3시간	문제해결 기반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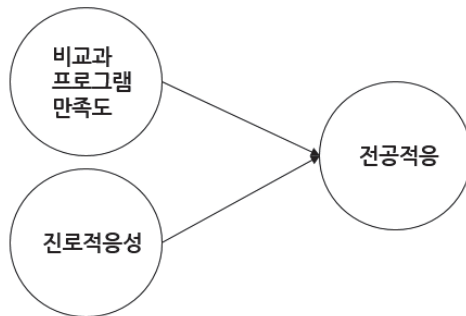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4년 신설된 C 학부에 재학 중인 2학년 1학기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총 17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 수는 Faul et al.(2007)의 G*Power 3.1.9.4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하였다.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설정했을 때, 최소표본 수 74명으로 산정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170명의 표본 크기는 통계적 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학년 1학기 2025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은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 특성(성별)

구분	응답자	비율
남성	150	88.2%
여성	20	11.8%
전체	170명	100%

2. 연구모형 및 측정변수

본 연구는 전공미결정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비교과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적응성’, ‘전공적응’이다. 각 변인의 하위요인 및 문항 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가.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심희수, 박인우(2024)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성과, 지원환경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내용은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902$, 교육방법은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911$, 교육성과는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87$ 이다. 지원환경은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95$ 로 확인되었다. 4개 요인을 포함한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932$ 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측정도구 신뢰도

조사명	내용		Cronbach α
	주요요인	문항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내용	5	.902
	교육방법	5	.911
	교육성과	4	.887
	지원환경	6	.895
전체		20	.932

나.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Savickas(2012)가 개발하고 Tak(2012)이 변안한 24개 문항을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관심(Concern), 통제(Control), 호기심(Curiosity), 자신감(Confidence)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심(Concern) 요인은 총 6문항으로 Cronbach's $\alpha = .833$, 통제(Control) 총 6개 문항으로 Cronbach's $\alpha = .814$, 호기심(Curiosity) 요인 역시 총 6개 문항으로 Cronbach's $\alpha = .795$, 자신감(Confidence) 요인 역시 6개 문항으로 Cronbach's $\alpha = .794$ 로 확인되었다. 4개 요인을 포함한 전체 진로적응성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27$ 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진로적응성 측정도구 신뢰도

조사명	내용		Cronbach α
	하위요인	문항수	
진로적응성	관심(Concern)	6	.833
	통제(Control)	6	.814
	호기심(Curiosity)	6	.795
	자신감(Confidence)	6	.794
전체		24	.827

라. 전공적응

마지막으로 전공적응은 강혜영(2008)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전공적응은 학과(전공)선택만족, 학업수행만족, 진로목표안정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먼저 학과(전공)선택만족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16$, 학업수행만족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64$, 진로목표안정성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688$ 로 확인되었다. 이중 진로목표안정성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 = .688$ 로 나타났다. DeVellis(2003)의 기준에 따르면 이 값은 최소한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65~.70)에 해당하며, 측정도구로서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3개 요인을 포함한 전체 전공적응의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32$ 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표 5〉 전공적응 측정도구 신뢰도

조사명	내용		Cronbach α
	하위요인	문항수	
전공적응	학과(전공)선택만족	6	.816
	학업수행만족	7	.864
	진로목표안정성	5	.688
전체		18	.832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WINDOWS 29.0을 활용하였으며, 단일변수에 대한 영향력 검증을 위해서는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다중 변수의 동시적 영향력 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적응성, 전공적응 기술통계 분석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적응성, 전공적응 진단의 각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M), 표준편차(SD) 등 기술통계는 <표 6>과 같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3.82점(SD=.579)로 나타났고, 진로적응성은 3.97점(SD=.435)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공적응은 3.82점(SD=.4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2와 7 이내로 확인되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West et al., 1995)(<표 6> 참조).

<표 6> 비교과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적응성, 전공적응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내용	170	1.00	5.00	3.84	.599	-.72	2.68
	교육방법	170	1.00	5.00	3.79	.684	-.59	1.25
	교육성과	170	1.00	5.00	3.82	.662	-.57	1.43
	지원환경	170	1.80	5.00	3.81	.613	-.44	1.09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3.82	.579	-.53	2.16
진로 적응성	관심(Concern)	170	1.83	5.00	3.80	.588	-.22	.37
	통제(Control)	170	2.83	5.00	4.19	.486	.00	-.18
	호기심(Curiosity)	170	2.17	5.00	4.02	.517	-.14	.46
	자신감(Confidence)	170	2.67	5.00	3.87	.546	-.12	.05
	진로적응성 평균				3.97	.435	.16	.44
전공 적응	학과(전공)선택만족	170	2.50	5.00	4.11	.563	-.33	-.16
	학업수행만족	170	1.57	5.00	3.35	.764	.13	-.52
	진로목표안정성	170	1.60	5.00	3.53	.604	-.19	.04
	전공적응 평균				3.66	.484	.00	-.07
전체 평균		170	2.53	4.83	3.82	.400	.05	.68

2.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전공적응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7$, $p<.01$).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의 하위요인과 전공적응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표 7〉 비교과프로그램만족도, 전공적응간의 상관계수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성과	지원환경	전공적응
교육내용	1				
교육방법	.797**	1			
교육성과	.783**	.778**	1		
지원환경	.711**	.785**	.756**	1	
전공적응	.442**	.413**	.480**	.400**	1

* : $p<0.05$, ** : $p<0.01$, *** : $p<0.001$

그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은 전공적응에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교육성과’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8$, $p<.01$). 결과는 무전공 대학생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족할수록 전공적응을 잘하고, ‘교육성과’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전공적응을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두 변수 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13.192$, $p<.001$),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전공적응 변량의 약 24.2%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42$). 이는 무전공 대학생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성과, 환경에 만족할수록 전공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

하위요인	R^2	$F(p)$	β	$t(p)$
교육내용	.242	13.192***	0.125	1.240(.217)
교육방법			0.004	0.044(.965)
교육성과			0.236	2.565(.011*)
지원환경			0.033	0.350(.727)

* : $p<0.05$, ** : $p<0.01$, *** : $p<0.001$

3. 무전공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무전공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전공적응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52, p<.001$).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과 전공적응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표 9〉 진로적응성과 전공적응간의 상관계수

	관심 (Concern)	통제 (Control)	호기심 (Curiosity)	자신감 (Confidence)	전공적응
관심(Concern)	1				
통제(Control)	.530**	1			
호기심(Curiosity)	.599**	.542**	1		
자신감(Confidence)	.560**	.498**	.555**	1	
전공적응	.470**	.458**	.394**	.470**	1

* : $p<0.05$, ** : $p<0.01$, *** : $p<0.001$

그 결과, 진로적응성은 전공적응에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관심(Concern)’과 ‘자신감(Confidence)’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70, p<.001$). 이러한 결과는 무전공 대학생의 경우,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전공적응을 잘 하고, ‘관심’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전공적응을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전공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두 변수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73.555, p<.001$), 진로적응성은 전공적응 변량의 약 3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305$). 이는 무전공 대학생의 경우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전공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무전공 대학생의 관심(Concern), 통제(Control), 자신감(Confidence)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공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0〉 참조).

〈표 10〉 진로적응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

하위요인	R^2	F	β	$t(p)$
관심(Concern)	.305	73.555***	.176	2,430(.016*)
통제(Control)			.219	2,681(.008**)
호기심(Curiosity)			.017	.208(.836)
자신감(Confidence)			.205	2,752(.007**)

* : $p < 0.05$, ** : $p < 0.01$, *** : $p < 0.001$

4.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표 11〉 참조). 그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84, p < .001$),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전공적응 관계 역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 = .477, p < .001$). 이와 함께 진로적응성과 전공적응 또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52, p < .001$)(〈표 11〉 참조).

〈표 11〉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적응성, 전공적응 간의 상관계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적응성	전공적응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1		
진로적응성	.384**	1	
전공적응	.477**	.552**	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또한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표 12〉 참조).

그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적응성을 예측변수로 하여 전공적응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F = 52.748 (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적응성은 전공적응 변량의 약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380$).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의 회귀계수는 .311로 전공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며($\beta = .311, p < .000$), 진로적응성의 회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432, p < .000$). 또한 잔차분석,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잔차분석의 경우 Durbin-Watson값을 확인한 결과 1.924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853으로 모두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172로 값이 5 미만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ir et al., 2017).

전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준거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진로적응성($\beta = .432, p < .000$),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beta = .311, p < .000$) 순으로 확인되었다(〈표 12〉 참조).

〈표 12〉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상수)	.762	.287		2,660(.009)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259	.055	.311	4,745(.000***)	.853	1.172
진로적응성	.481	.073	.432	6,592(.000***)	.853	1.172
R^2				.387		
adj. R^2				.380		
F(p)				52.748***		
Durbin-Watson				1,924		

* : $p < 0.05$, ** : $p < 0.01$, *** : $p < 0.001$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재학생 개인의 환경요인이라 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S 대학 C 학부의 1학년 과정 동안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경험한 170명의 무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 및 전공적응에 대한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수집 후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전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이 전공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교육성과'($\beta = .236, t=2.565, p<.05$)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무전공 학생들은 전공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므로,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보다 '실질적으로 배운 것이 있다'는 체감 가능한 교육성과가 전공 선택의 자기효능감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Bandura, 1997). 이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지식 전달 기능을 넘어 진로 결정 역량 강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대근, 김우식, 2024). 따라서 학습목표 및 학습역량,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향후 요구된다. 특히 전공에 대한 탐색과정을 거치는 무전공 학생들에게는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전공을 선택했을 때 가능한 진로경로 등이 전공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적 기초지식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용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전공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 프로젝트, 인턴십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학생의 관심과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무전공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전공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중 관심(Concern)과 통제(Control), 자신감(Confidence)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관심(Concern)이 전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beta = .176, p<.05$)는, 무전공 학생이 미래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계획을 수립할수록 전공 탐색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Control) 역시 전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9, p<.001$).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전공 학습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에 대한 자기통제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전공 관련 과제와 학업 상황에서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Savickas, 2005)와 맥을 같이한다. 자신감(Confidence)의 영향($\beta = .205, p<.001$)은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공 과업 참여와 학업 지속력을 높이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Savickas, 2005). 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진로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신

념을 지닌 학생일수록 전공 탐색과 선택, 그리고 전공 학업 수행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무전공 체제에서 재학생의 전공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적응성, 특히 관심 요인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는 학생들이 전공 선택과 학업 수행을 보다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스킬 및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진로에 있어서의 장애를 인식하여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은 전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적응성의 영향력이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진로적응성 $\beta=0.432$,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beta=0.311$). 구체적으로 무전공 대학생의 전공적응에 대한 진로적응성은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무전공 대학생의 전공적응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공탐색은 물론 관련 전공에 대한 진로 탐색, 커리어 경로, 롤모델과의 교류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고, 진로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할 것이다.

본 연구는 Savickas(1997, 2005, 2012)의 진로구성이론과 Super(1957)의 경력발달이론을 토대로, 무전공이라는 특수한 고등교육 환경에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자원이 전공적응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효과나 진로적응성의 영향을 각각 별도로 다루었으나, 본 연구는 두 요인을 무전공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환경적 요인)와 진로적응성(개인적 요인)이 동시에 전공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적응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큼을 보여줌으로써, 무전공 학생 지원에서 개인 심리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무전공 대학생의 전공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인 진로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대학 및 학부차원에서 제공하는 환경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교수설계를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C학부의 SNUTI IN LOUNGE는 전공 분야별 석학 및 실무 전문가를 초청하는 형태로, 학생들이 ‘교육성과(전문 지식 습득, 진로경로 탐색)’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교육성과가 전공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점은 이러한 프로그램 설계가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SNUTI ON SITE의 산업현장 문제 기반 워크숍은 학생들의 자신감(Confidence) 함양에 기여할 수 있으며, SNUTI INTO FUTURE의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진로 관심(Concern) 고취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로적응성 하위요인별 목표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진로 자신감 고취를 위한 1:1 상담 체계 구축과 교육성과 중심의 비교과 커리큘럼 로드맵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4년제 대학의 이공계열 학생 중 전공선택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88.2%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공계 특성상 남성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별이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및 진로적응성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거나 성별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을 포함한 다양한 계열의 학생과 지역별·대학 유형별 표집을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전공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진로적응성 및 전공적응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다수의 대학에서 무전공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변인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그 경험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으나, 비교과 프로그램만족도와 전공적응 간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또는 성별·전공 선호도의 조절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SEM) 등을 통해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무전공 학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종단적·장기적 연구 설계를 통해 무전공 학생의 전공선택 및 결정 과정과 전공적응의 변화 양상을 추적·분석한다면, 무전공 학생의 효과적인 전공탐색 지원과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주관적 시각 편향이 개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설계와 함께, 심층인터뷰 및 관찰법을 결합한 혼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방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영 (2008). 이공계 대학생의 개인 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적응 수준 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9(3), 63-82.
- 강혜영 (2011). 이공계 대학생의 흥미-전공일치도, 자기효능감과 전공적응도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21(1), 115-127.
- 김나영 (2025). 대학 신입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유형과 대학생활 적응: 우수 적응 집단 예측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63(8), 35-63.
- 김대근, 김우식 (2024). 스포츠 전공 대학생-교수가 인식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의 교육성과가전공물 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 22(3), 545-554.
- 김수천 (1973). 자아개념·학습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춘천대학교 논문집*, 14, 45-86.
- 김성숙 (2014). 한양대학교 비교과 의사소통 활동 중 렌즈에세이 쓰기 대회 운영 사례 보고. *문화와 융합*, 36, 9-30.
- 김유호 (2013).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 만족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9(10), 165-181.
- 김하연 (2026. 03. 02.). 5배까지 높은 주요대 무전공학과 중도탈락률 “무한 수굴레 떠밀어”. *VERITAS*.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164>
- 김해숙, 권정현 (2024). 혼란과 확신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무전공 입학 대학생의 첫 학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9), 567-579.
- 김현우, 강선영 (2018). 대학생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사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337-357.
- 곽비주 (2025) 무전공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5(3), 43-59.
- 김형기, 이은채 (2025). 무전공 입학 대학생의 전공선택과정 사례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4(5), 633-658.
- 고은선, 심태은 (2024). 대학생의 전공선택 탐색 및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 *종교교육학연구*, 77, 121-136.
- 박금주 (2024).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202-205.
- 신소영, 권성연 (2013). 대학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과학연구*, 44(3), 107-132.
- 심희수, 박인우 (2024).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대학 교수·학습연구*, 17(3), 111-131.

- 손미란, 박지순, 추가영 (2024).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학생 학습경험 분석: 경북 소재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9), 295-316.
- 이신영 (2026. 04. 20).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입학 확대 ... 2025학년도 대입 혼란 예상돼. <https://news.knue.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080>
- 이정아, 윤소정 (2018). 유학생과 한국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2), 681-697.
- 이재영, 백평구 (2025). 무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 주관성 연구, 71, 45-66.
- 이현주, 권나현 (2018).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 및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비교. 아시아교육연구, 19(3), 825-851.
- 임수연, 김은영 (2025). 무전공 대학생의 전공탐색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공동체 연구와실천, 7(2), 331-349.
- 윤희정, 정윤숙, 공성수 (2018). 대학생 핵심역량 기반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한국핵심역량 교육학회 학술대회지, 4, 213-241.
- 장계영, 김봉환 (2009). 진로상담: 진로전환검사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0(1), 399-415.
- 장지영, 나지영, 김동주 (2024). 대학 전공트랙제 기반 융합전공자의 전공적응 지원을 위한 비교과 교육요구 분석: H대학의 제2트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7), 777-790.
- 전중희 (2024). 자율전공선택제('무전공' 제도)의 주요 내용과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3), 511-543.
- 정유남, 백혜선, 신희임, 이은순 (2025). 자유전공학부 전공 및 진로 탐색 방안 연구: 만족도 조사 기반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학 연구, 31, 187-221.
- 정윤숙, 윤희정, 공성수 (2019). 대학생 핵심역량 기반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교양교육 연구, 13(5), 293-321.
- 조아라, 이윤선, 황지영 (2015). 동국대 경주캠퍼스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독서멘토링'의 운영 사례 연구. 대학작문, 10, 53-98.
- 한안나 (2017).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성과. 교육문제연구, 30(4), 11-138.
- 황영아 (2024). 무전공계 학생의 전공탐색 및 전공선택에 관한 질적 연구: H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4(3), 159-175.
- 최공집, 조혜영 (2020).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학습역량과 전공만족도 및 전공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263-279.
- 최미순, 조혜영, 이희연 (2019). 대학생 학습역량 척도의 타당화 연구: S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309-335.

- 최옥현, 김봉환 (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Career Futures Inventory(CFI)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7(3), 821-833.
- 최정희 (2020).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과정(Co-Curriculum) 이 학생의 전공역량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D대학교 공과대학 ‘일반수학2’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3), 515-533.
- Ahren, C. (2010). Disentangling the unique effects of co-curricular engagement on self-reported student learning outcome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 Bakoban, R. A., & Aljarallah, S. A. (2015).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ir effect on the student's grade point average: statistical study.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10(20), 2737-2744.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 Conoley, J. C., & Conoley, C. W. (1991). Collaboration for child adjustment: Issues for school- and clinic-based child psycholog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6), 821-829.
- Creed, P. A., Muller, J., & Patton, W. (2003). Leaving high school: The influence and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related confidence. *Journal of Adolescence*, 26(3), 295-311.
- DeVellis, R. F. (2003).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2nd ed.). Sage Publications.
- Eccles, J. S., & Wigfield, A. (2002). Motivational beliefs,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09-132.
- Faul, F., Erdfelder, E., Lang, A.-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Guevremont, N., Findlay, L., & Kohen, D. (2014). Organiz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in-school and out-of-school activities associated with different outcomes for Canadian youth?, *Journal of School Health*, 84(5), 317-325.
- Hair, J. F., Hult, T. M., Ringle, C. M., & Sarstedt, M. (2017).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ge.
- Hall D. T., & Mirvis, P. H. (1996). The new protean career. Psychological success and the path with a heart. In D. T. Hall & Associates(Eds.), *The career is dead-Long live the career: A relational approach to careers*(pp. 15-45).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Harper, C. E., Orr, R., & Stolzenberg, E. B. (2023). Demographics, Purpose, and Dreams: Predicting Entering College as an Undecided Major Student. *NACADA Journal*, 43(2), 136-145.
-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Lim, H. J., Hwang, M. H., & Ha, H. (2021). The relationship of grit, career adaptability,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djustment: Focusing on multiple mediational effects. *Hong Ko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57, 184-195.
- Murray, M. A. (2016). Identity compatibility, career adaptability, and adaptive coping as predictors of college women's commitment in STEM majors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https://www.proquest.com/dissertations-theses/identity-compatibility-career-adaptability/docview/1780691539/se-2>
- Nota, L., Ginevra, M. C., & Soresi, S. (2012). The Career and Work Adaptability Questionnaire (CWAQ): A first contribution to its valid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5(6), 1557-1569.
- Oliveira, I. M., & Marques, C. (2024). The Role of Career Adaptability and Academic Engagement in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1(5), 596.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f8d7880d-en>
- Ribeiro, N., Malafaia, C., Neves, T., & Menezes, I. (2024). The impac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success and employability. *Europ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4(3), 389-409.
- Ryan D. Duffy, R. P. Douglass, & K. L. Autin (2015). Career adaptability and academic satisfaction: Examining work volition and self-efficacy as medi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0, 46-54.
- Savickas, M. L. (1997).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47-259.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avickas, M. L.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661-673.

- Silver, B. R. (2023). Major transitions: How college students interpret the process of changing fields of study. *Higher Education*, 87(4), 1027-1042.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Harper & Brothers.
- Tak,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712-71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Sage Publications, Inc.
- White, A. M., & Gager, C. T (2007). Idle hands and empty pockets? Youth involv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status. *Youth & Society*, 39(1), 75-111
- Xiao, Y., & Liang, F. (2024).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 satisfaction with extracurricular activity, expectations and academic outcomes: A case study. *Frontiers in Educational Research*, 7(11), 246-255.

박복미(제1저자,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객원부교수, HRD, 교육효과성, 진로교육, 교육방법, 교육측정, 비교과 교육, 일터행복감, bbbomi@snu.ac.kr

논문접수일: 2026년 2월 25일

논문심사일: 2026년 3월 31일

게재확정일: 2026년 4월 30일

ABSTRACT

**Students' Satisfaction with Extra-Curricular Programs and
Career Adaptability on Major Adjustment:
Focused on the Case of School of C at S University**

Bok Mi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non-curricular program satisfaction and career adaptability on major adjustment among non-majo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o achieve this objective, a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70 second-year students enrolled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track of the School of C at S University.

The study focused on students at the point of making their major decision after one year of university experience, assessing their perceptions related to major adjustment: satisfaction with major choice, satisfaction with academic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career goals. The impact of non-curricular program satisfaction and career adaptability on these aspects of major adjustment was investiga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9.0, employing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earch analysis revealed that, firstly, the satisfaction levels of non-major university students with co-curricular programmes were found to influence their adaptation to their major. Among the sub-factors of co-curricular programme satisfaction, educational outcomes were foun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non-major students' adaptation to their major. Secondly, it was confirmed that the career adaptability of undeclared undergraduates also influences their adaptation to their chosen major. Among the sub-factors of career adaptability, "Concern", "Control" and "Confidence" were found to exert a relatively greater influence. Thirdly, it was confirmed that both the satisfaction with extracurricular programmes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declared students influence their adaptation to their chosen major. Among

* First & corresponding author, Seoul National University, bbbomi@snu.ac.kr

these, career adaptability was found to exert a relatively greater influence than satisfaction with extracurricular programm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o support the adaptation of undeclared students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rengthen measures enhancing career adaptability and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the extracurricular programmes offered. Furthermor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se programmes be designed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educational outcomes component.

[Keywords] Extra Curricular Program, Extra-Curricular Program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Major Adjustment, non-major university students